

중국 불교상품을 만나자

2007 한국불교박람회에 산동성위원회 참여, 각종 불교용품 전시

3월 22일부터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현대불교신문사와 제이컨벤션이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박람회에 최초로 중국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은 1월 16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동성위원회(이하 산동성위원회) 및 중국측 대행업체 TZL비즈니스 등과 불교박람회 유치에 관한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산동성위원회 실무자가 직접 박람회 사무국을 방문, 중국 산동성 내 불교관련업체들의 박람회 참여가능 여부를 타진하면서 시작됐다. 산동성위원회는 1978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및 경제 국제화 전략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업종별 20개 지회와 현급 국제상회 72개 조직을 갖고 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산동성위원회는 산동지역 업체들의 설비를, TZL비즈니스사는 홍보 및 설비업체의

한국전시와 체류 등에 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중국측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산동성위원회가 1차로 선별한 뒤 박람회사무국에서 박람회의 연관성 및 국내 동종업계의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참가하는 중국측 업체는 한국 업체와 동일한 금액을 참가비로 지불해야하며 운송, 통관, 체류 등 비용 및 실무 제반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한국불교박람회 장혁 사무국장은

첫 정책포럼 개최

불교인재개발원, 30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이 사회 흐름을 진단하고 선도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책포럼의 강사는 박원순 변호사(사회경제연구소 총괄책임자)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

"현재 중국관에 입점하게 될 품목으로는 불교용품 외에 차(茶)와 석재 등이 협의되고 있다"며 "중국 업체들의 참여는 불교수입용품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것이고 동시에 침체된 국내 불교용품업체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내불교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중국불교용품들을 대중들에게 공개적인 장으로 이끄는 한편, 경쟁력 있는 한국 불교 산업의 도약을 이룰 사회적경제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발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영교 동국대 총장, 우승택 삼성증권 센터장, 윤성식 고려대 교수 등 정·재·계, 학계 등 저명인사로 짜여졌다. 주제는 초청인사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된다. 11월에는 대선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인재개발원은 1월 30일 오후 6시 2006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박원순 변호사를 초청해 '희망 한국을 디자인한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첫 정책포럼의 문을 연다. 02)735-2428 박봉영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사진 왼쪽),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희망의 쌀'을 서울시속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도선사 108산사순례단 '농촌살리기' 선포

불교계가 한미 FTA와 각국의 농산물 수입압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 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이다.

서울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과 불교TV는 1월 1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비롯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우리농촌 살리기 선포식'과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발대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축

사를 통해 "108산사 정진을 살려 다 같이 살아가도록 농촌살리기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은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농촌 살리기에 범 불교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구매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구입해 보시한 우리쌀 1087마(40kg)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인재개발 장학생 1호 탄생

여성개발원, 이화씨 선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화 사무국장(사진)이 개발원에서 선정하는 '인재양성 장학생' 1호에 선정돼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불교인재양성 기금마련 바자'를 통해 마련한 기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

로 결의했다. 김인숙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자리를 잡는데 헌신의 노력을 한 이화씨를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화 국장은 "더 넓은 곳에서 견문을 넓히고 불교에 회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또또수행' 보시금 기탁

서울경기 포교사단

조계종 서울경기 포교사단이 '또또수행'으로 모은 보시금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기탁했다.

'또또수행'이란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하는 것.

서울경기 포교사단은 1월 13일 서울 안암동 개운사 대웅전에서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서울경기 포교사단은 이날 오후 불식을 통해 모은 보시금 100만원을 개운사 어린이 포교지원비로 전달했다.

남동우 기자

사찰음식보존회 29일 발대식

사찰음식의 연구·계승과 대중화를 위해 결성된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회장 선재, 이하 사찰음식보존회)'가 1월 29일 오후 3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연 선재 스님은 "출법식을 시작으로 연구·교육·대외홍보 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사업으로는 사찰음식에 대한 경전 근거 수집, 사찰전래음식 채록·녹취, 표준교과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우리 함께 깨달음으로"

1월 15일부터 17일 까지 3일간 동화사 승가대학교(강주지운) 학인 28명은 마가 스님을 초청 강사로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하고 성찰하자'는 명상 교육을 했다. 사진은 빈 공간에 한사람이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른 공간을 채워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우리 함께 깨달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장면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낙제점 원인은 금권·계파·무능..."

'청정승가를 위한...' 출·재가자 215명 대상 설문

지난 11월 입기를 완료한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에 대해 '낙제점' 수준의 평가가 내려졌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만초)'가 지난 9월 출가자 100명과 재가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계종 중앙종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앙종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67%에 달했다. 긍정적 평가는 8.8%에 그쳤다.

◇선거 혼탁 75%...금권선거 44%

중앙종회 활동이 미흡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절반이 넘는 54.4%가 '문종과 계파의 이해관계'를 꼽았다. '종단 내 무순과 갈등' 15.8%,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부족' 14.9%가 뒤를 이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9%가 혼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어법하다'는 답변은 2.4%였다. 혼탁한 원인은 '금권선거 만연' 44.0%, '계파 주도권 싸움' 35.2%, '문종 이해관계 대립' 11.9%, '자질·능력 부족' 7.8%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종회의원의 윤리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5.3%만이 신뢰를 받고 있다고 답했고, 71.7%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자질과 역량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50.5%)에 달했고, '좋아졌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은 34.9%로 나타났다.

중앙종회가 결정한 주요 정책들의 중단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6.2%로 나타나 '그렇다(12.3%)'는 의견 보다 월등히 높았다.

◇감시·견제 필요 91%...표결실명제 확대 77%

응답자의 67.8%가 중앙종회의 '권한과 역할이 크다'고 응답하고, 55.8%가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90.9%의 응답자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책 결정에 있어 신도단체에게 의견제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7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출·재가자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재가자는 82.3%가 찬성한 반면, 출가자는 56.3%만이 찬성했다.

중앙종회 발전을 위해서는 비구니 종회의원 수를 늘리고 의안 표결실명제 확대

윤리·청렴성 신뢰 낮고

표결 실명제 요구 높아

면책특권 제한해야 77%

(77.0%), 중앙종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76.6%) 등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상당수에 달했다. 비구니 종회의원수의 적정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69.5%가 부족하다고 답하고, 현재 10명에서 20명 정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46.2%)과 2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44.5%)을 제시했다.

◇채질 개선 등 향후 과제 제시 이번 설문결과를 중앙종회를 바라보는 불교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점에서 중앙종회의 체질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권선거 등으로 인한 신뢰 부족과 자질·역할 부재에 대한 지적은 중앙종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명확히 제시해 준 것과 닮아 있다.

한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는 올 3월 중순에 공식 출범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한불교 대승종

제5세 종정 법청당 천광 대종사 취임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항상 본 종단을 애중하시는 전국 중도 여러분과 도암문도 여러분의 법체 청안 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대한불교 대승종 중앙 종의회에서 종정으로 추대되신 제5세 법청당 천광 대종사님의 취임법요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 하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 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종단 중도스님은 행사당일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p style="text-align: center;">아 래</p> <p>■ 행사일시 : 불기 2551(2007)년 1월 30일 (음력 12월 12일)</p> <p>■ 장 소 : 영천시 완산동 수덕 웨딩 2층 054)333-7100, 333-7200</p> <p>■ 시 간 : 오전 11시</p> <p>■ 문 의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051)638-4088, 055)532-4414</p> <p>■ 후 원 : 중앙 종의회, 총무원 각교구총무원, 현대불교신문, 전국신도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대회장 법천 청화</p> <p>원로위원장 법상 심곡 감찰위원장 법서 청원 기획실장 법용 정관</p> <p>서울교구 총무원장 법암 혜심 충청남북 교구 총무원장 혜능 전북교구 총무원장 법전 법현 군산교구 총무원장 덕일 경남서부 교구 총무원장 일봉</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봉행위원장 법상 심곡</p> <p>법호 서호 총무원장 법천 청화 교육원장 법진 도일 법연 덕운</p> <p>경기교구 총무원장 법신 경북교구 총무원장 혜암 전남교구 총무원장 진덕 부산교구 총무원장 청운</p> </td> </tr> </table>	<p>대회장 법천 청화</p> <p>원로위원장 법상 심곡 감찰위원장 법서 청원 기획실장 법용 정관</p> <p>서울교구 총무원장 법암 혜심 충청남북 교구 총무원장 혜능 전북교구 총무원장 법전 법현 군산교구 총무원장 덕일 경남서부 교구 총무원장 일봉</p>	<p>봉행위원장 법상 심곡</p> <p>법호 서호 총무원장 법천 청화 교육원장 법진 도일 법연 덕운</p> <p>경기교구 총무원장 법신 경북교구 총무원장 혜암 전남교구 총무원장 진덕 부산교구 총무원장 청운</p>
<p>대회장 법천 청화</p> <p>원로위원장 법상 심곡 감찰위원장 법서 청원 기획실장 법용 정관</p> <p>서울교구 총무원장 법암 혜심 충청남북 교구 총무원장 혜능 전북교구 총무원장 법전 법현 군산교구 총무원장 덕일 경남서부 교구 총무원장 일봉</p>	<p>봉행위원장 법상 심곡</p> <p>법호 서호 총무원장 법천 청화 교육원장 법진 도일 법연 덕운</p> <p>경기교구 총무원장 법신 경북교구 총무원장 혜암 전남교구 총무원장 진덕 부산교구 총무원장 청운</p>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천 청화